상반기 출판산업계의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환경변화

기고 | 정세일(유플러스연구소 연구위원)

새로운 타개책이 요구되는 출판산업계의 불황

작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된 출판사 전체를 최초로 전수조사한 <2013년 출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출판산업계의 몇 가지 의미 있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전국 출판산업 매출액에서 전자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전자책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2년 국내 전체 신고출판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자책 매출액의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자책 제작 필요성에 대해 조사 대상 출판사의 6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전자책 제작 실적이 없는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전자책 제작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50.4%가 '없다', 28.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변화 트렌드에 국내 출판산업이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출판산업에서 국산 도서의 비중이 번역도서의 비중을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도서 번역출판 실적이 있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총 발행도서 대비 번역도서의 비중을 질문한 결과 전체 도서 대비 평균 43.9%가 번역출판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전체 등록 출판사의 출판매출액 대비 번역도서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평균 42.6%로 앞에서 소개한 전자책 매출액 비중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출판물의 생산력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출판산업의 침체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판산업의 경기동향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출판산업 경기 전반 업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들은 2013년 기준으로 5점 만점에 2.1점으로 응답해 2012년 기준 2.2점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출판산업 경기 업황에 대해 응답업체의 39.2%가 다소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8.8%는 매우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업체의 60% 이상이 출판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소 호전되었다는 응답은 4.2%, 매우 호전되었다는 응답은 0.1%에 불과하였다.

넷째,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출판산업계에서는 경기침체, 독자감소, 출판시장 경기 악화, 독서 판매량 감소 등 주로 부정적 환경요인들이 업계 매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판계의 조사결과 2013년 매출 변화 주요 요인으로 경기침체가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독자감소(8.4%), 신간도서 발행 증가(6.8%), 출판시장 경기 악화(5.4%), 도서 판매량 감소(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출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출판산업은 불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새로운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상반기에는 출판산업계의 침체상황 극복과 관련된 몇 가지 환경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금년 4월 29일(화)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 법률안은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몇 가지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실용서 및 초등학습참고서의 경우 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었지만 법률개정안 통과로 실용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둘째,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서도 정가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구간도서)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역시 경우에 따라 정가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의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했다. 기존에는 신간도서(발행 18개월 미만)의 경우 정가의 10% 이내로 직접할인이 가능하고 판매가의 10% 이내에서는 마일리지 및 쿠폰 등을 통한 추가할인도 가능하여 총 19%까지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총할인률은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이 가능하고,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넷째,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에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기관과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은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도 정가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법률안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출판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출판산업은 불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새로운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다.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이러한 법률개정은 국내 출판산업의 불황 타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에 통과된 법률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출판산업계에 만연했던 가격경쟁 심화 경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할인율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도서가격의 실질적 인상이 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격경쟁 완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독자들의 가격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판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2014~2018) 발표

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2014~2018)이 발표된 것도 출판업계의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환경변화이다. 금년 5월 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이 발표되었다. 만화 소비자들의 웹툰 등 디지털 만화 소비 증가로 출판만화잡지가 축소되는 등 출판만화시장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시에 웹툰 등 디지털 만화가 단행본 출판만화로 출간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파크의 만화 판매 순위 상위 100위 중 웹툰으로 출간된 작품이 47%에 달하며 상위 10위 이내의 작품은 모두 웹툰이 원천콘텐츠인 작품들이다. 따라서 그 동안 만화산업계에서는 출판만화와 디지털 만화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계획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에는 디지털만화와 출판만화시장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추진을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산만화 중 아동·청소년, 성인 등 분야별로 우수만화도서를 선정하고 목록을 배포하여 좋은 만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우수만화도서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며, 교육부(각급 학교), 국방부(군부대) 대상 출판만화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웹툰 관련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웹툰 및 만화콘텐츠를 활용한 출판, 캐릭터상품 제작, 게임제작 등의 창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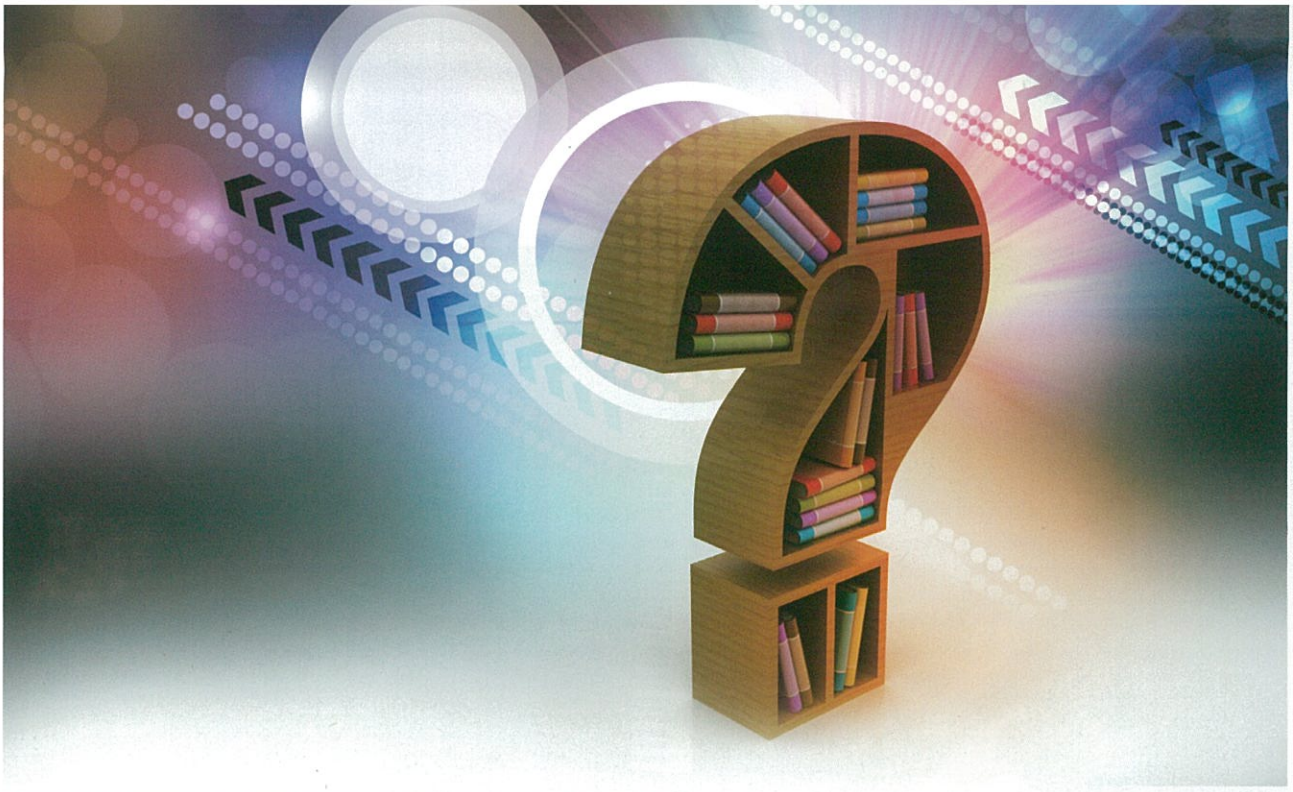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출판산업의 불황 타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웹툰 등 디지털 만화의 성장과 이에 기초한 출판만화의 동반성장이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면 출판만화의 재도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지속 추진

2014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9차 협상이 금년 1월 개최되었고, 이어 3월에는 10차 협상이, 그리고 5월에는 11차 협상이 진행되는 등 상반기에 총 3차례의 협상이 추진되었다. 또한 7월에는 12차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국내 출판산업계의 중국 진출에 커다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출판산업의 경우 중국내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전체 문화콘텐츠시장을

웹툰 등 디지털 만화의 성장과 이에 기초한 출판만화의 동반성장이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면 출판만화의 재도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에 일어난 몇 가지 변화들은 국내 출판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할 것이다.

주도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다.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중국 출판시장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4.1%로 예상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출판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판계는 2013년 1440억 위안의 수익을 거두어 들여 2012년 대비 9.3%의 수익 증가를 기록했였다. 중국 출판시장은 이처럼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아동도서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중국내 아동도서 출판물은 약 4만 7천 종으로 도서 총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중국내 아동도서 출판물은 2002년의 1만 권 전후에서 2012년 4만 권으로 10년 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서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감·면세 정책을 통해 중국의 서점업계를 진흥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추진된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저세율 및 영세율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며, 실제로 상하이, 저장, 장쑤 등지에서는 이미 서점에 대한 이 같은 재정적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 문화콘텐츠시장은 그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이러한 기존의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완화되게 될지에 대해 출판산업계를 비롯한 국내 콘텐츠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출판시장의 완전개방은 협정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홍콩, 마카오, 아세안(ASEAN), 칠레, 파키스탄 등 12개 국가와 FTA협상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 호주, 노르웨이 등 7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체결한 12건의 FTA 중 대부분의 협정에서 출판산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과 체결한 일부 FTA에서 외국인 전액출자기업을 허용하되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된다는 단서를 부과하여 부분 개방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출판물 인쇄 등 출판산업은 제한업종으로, 도서 출판업무는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출판산업 전면개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체결은 중국내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 증가에 따라 국내 출판물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출판산업은 한·중 FTA 체결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의 중국 진출 방안 및 전략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변화를 불황타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절실

지금까지 2014년 상반기에 발생한 국내 출판산업계의 주목할 만한 환경변화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2014~2018)이 발표되었다. 또한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지속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내 출판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출판산업계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적응 및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